



산 :

삼십대 후반의 여자 사람. 투덜이, 도피자, 표면적 염세주의자, 게으른 이상주의자. 날 것 그대로인 것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을 동시에 좋아함. 겉과 속이 매우 다르며 합리화의 달인. 학업이 심하게 늘어져 현실 감각은 떨어지고 눈만 높음. 십년간의 유학생 생활 후 돌아와 서울에서 살아보려 했으나, 도피본능에 무릎꿇고 서귀포에서 자발적 격리생활 중. 내가 생각하는 대략적인 '나'이다. 이런 사람의 글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보면 되겠다.

건축설계를 전공했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짧은 실무경력이 있다. 졸업한 학교가 다른 건축학교에 비해 도시적 관점에 대해 다루는 비중이 높았고 그러한 사회에서 십년을 살다 보니,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따로 떼어 놓고 특별한 것 인냥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한국에서 짧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온 괴리감을 적절히 소화시키지 못했다. 어쨌거나 돌고 돌아 지금은 '도시 재생'을 포함한 지역경제 재생과 관련된 광범위한 일을 하는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 한 지 7개월 정도 지났다.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 주로 한 일은 동네 (자원) 조사와, 건축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워낙에 목적지향적이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게 된 계기도 우연에 가깝고, 거의 호기심으로 1-2년 정도 경험해봐서 손해 볼 것은 없겠다 싶은 가벼운 마음이었다.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피고용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이다. 회사같지 않은 '회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독재와 자유 방임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장'이라는 사람이 그 키를 잡고 있다. 나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가 어떠한지,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결국 모든 일이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왜하고 싶은지가 중요하고 어렵다고 느낄 뿐이다. 회사가 하는 일은 좀게 보았을 때, '도시 재생'과 관련된 일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자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만들고 찾아서 하고/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간헐적 단순 육체노동도 포함된 일들이며, 일차적인 책임, 부담, 창피함, 부딪힘은 본인의 몫이다. 이 또한 어떠한 일이든 그렇겠지만.

삶-돈-공간-건축-동네-도시-지역-우주의 어디쯤에서 건축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해 갈 것이기에 나의 인생에 이 회사가 어떻게 남을 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일단은 이 안에서, 비판적임과 동시에 긍정적일 수 있는 내공, 느린 과정에서 조바심 내지 않는 끈기를 기르는 것이 나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질리는) 글귀를 인용한다 :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어떠한 일을 하든,  
기획자가 되어라.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각오를 하라.